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 본격 착수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마련위해 총 104억 투입 연구소 10개소·스타트업 30개소 유치 할 계획

완도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인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건립에 대한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우철 완도군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도형 센터장, 조선대학교 김춘성 해양생물연구센터장, 정규진 해

양바이오연구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였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는 해양바이오 관련 국내의 대학·기업 및 연구기관들의 공동 협력 연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건립된다.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부지에 국비 52억 원이 포함된 총 104억 원을 투입

해 지상 3층, 연면적 4,247㎡ 규모로 조성되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를 건립하여 연구소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가 건립되면 유럽 블루벨리파크 협력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오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조류 소재 R&D 연구를 진행한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추진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여 해조류 고부가 가치화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협력연구소를 건립한다.”면서 “기술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해조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전국 여행사 대상...최대 50만원까지 지급

진도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사이며, 사전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진도군(관광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으로 진도군의 유료 관광지 방문과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고 숙박 등을 실

시해야 한다. 내국인 기준으로 1인당 ▲당일은 5,000원 ▲1박 12,000원 ▲2박 이상은 2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회 지원 한도액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수학여행단은 학교에 지급한다. 진도군의 유료 관광지는 진도타워, 윤림산방, 해양생태관, 소전미술관 등이 있으며, 올해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개최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진도군 전시관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료 관광지에 포함된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분양에 첫 단추를 꿰다

용천수산 주식회사와 첫 분양 계약 체결

장흥군은 지난 18일 용천수산 주식회사(대표 나명균)와 2021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첫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천수산 주식회사는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 고등어 대형 선망 어선 2

선단(1개 선단이 6척으로 구성), 소형 선망 어선 4선단(1개 선단이 5척으로 구성)이 입항할 예정이다. 장흥군 노력항을 고등어 선망 어선의 전진 기지로 삼아 이곳에서 하역한 고등어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서 냉동 가공품으로 생산한다. 장흥군 노력항과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양 계약을 계기로 노력항 등에서 선망 어업 선단 유치 사업과 연계하여 장흥산단에 고등어 냉동품 생산 업체 유치가 활기를 띠 것으로 보

인다. 장흥군은 현재 산업단지에 65개 업체(590,475㎡) 분양으로 48.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산업단지 분양률 60%를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한파 신속대응 수도피해 최소화 장흥댐 상수도 공급량 늘리고 긴급보수...15일부터 정상공급

해남군이 최근 이어진 강력 한파로 인한 단수 등에 신속히 대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군은 강한 추위가 시작되자 비상근무를 통해 마을 이장과 수도검침 담당자를 활용해 마을내 빈집, 교량부분 등 수도관 파열이 예상되는 구역을 우선 점검, 계량기 교체 21기, 관로보수 13건, 결빙 관로 해빙 12건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한파로 해남군은 수자원 공사와 신속히 협력해 상수도 공급량 확보를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또한 고지대 등 급수가 원활하지 않

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생수 150박스(900개)를 긴급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했다. 15일부터는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화원면 일부 마을도 관내 누수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현재는 모든 마을에 수도물이 정상 공급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는 지속적으로 한파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수도시설물 동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달달하고 쫄득한 고구마말랭이 드셔보세요”

고구마 원물 활용 자체 기술 개발 통해 맛·영양 다 잡아



㈜정심푸드는 고구마 원물간식을 최초로 도입해 100% 원물을 건조하여 고구마말랭이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한 제조부터 포장까지 화학적 처리를 모두 배제하고 자체 기술 개발로 6개월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정심푸드는 현재 자체브랜드 ‘달달’을 기반으로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2020년

에는 코코넛과 섞은 고구마말랭이로 1품목·1납품업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코스트코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원재료를 강진군 고구마 재배 농가와 6.5ha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정심푸드 진경학 대표는 “늘바른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진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희갑,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고구마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강진군에서 생산하여 안전한 공정 과정까지 거친 고구마말랭이는 설 명절 선물로 손색이 없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가구당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강진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당 60만 원이 지원되는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강진군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해당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세대원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더라도 경영주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는 10월에 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강진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김영일기자

